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6. 3. 30(수)	
		작 성 문 의	국무조정실 문화체육정책과 과장 권수진 / 사무관 안지윤 (Tel. 044-200-2328)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과장 강수상 / 서기관 권도연 (Tel. 044-203-2411)
* 엠바고 : 3.30(수) 15시30분 (행사종료) 이후 사용			
* 공동배포 : 문화체육관광부			

## 창의적 인재 양성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미래성장동력화

- 황 총리, 문화창조아카데미 교육현장 방문, 관계자 격려 및 시설 점검
  -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문화콘텐츠 교육기관으로 발전하기를 당부
- 황교안 국무총리는 3월 30일(수)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문화창조아카데미를 방문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추진현황을 보고받고, 아카데미 교육현장과 벤처단지 내 기업 지원시설을 살펴보았다.
- 이번 방문은 작년 11월 문화창조융합벨트 첫 번째 거점인 문화창조융합센터(서울 마포구 소재) 방문 이후 문화창조융합벨트 관련 두 번째 방문으로,
  - 지난 3월 2일 개관한 문화창조아카데미 제1기 크리에이터(학생)의 첫 학기 교육과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,
  - 2년차를 맞이하는 문화창조융합벨트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지원 의지를 표명하고,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.
- \* (참석) 정관주 문체부1차관,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, 김준섭·고주원 아카데미 교수(감독) 등

- 문화창조아카데미는 교육과 동시에 실제 산업현장에서 구현 가능한 융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학교이자 연구기관으로,
  - 문화·예술·인문사회·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복합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미래형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.
  
- 황 총리는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부터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현황과 문화창조아카데미 운영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,
  - 문화창조아카데미를 ‘미래 융합형 인재양성’의 산실이자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개발하는 모태라고 말하고,
  - 세계적인 문화산업 영토 확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기술을 융합한 핵심콘텐츠, 즉 ‘킬러콘텐츠’의 창출이 중요하다고 한 후,
  -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문화창조아카데미가 전세계 문화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.
  
- 황 총리는 문화창조아카데미가 국내에서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문화콘텐츠 교육기관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면서,
  - 앞으로 아카데미의 최첨단 교육시설 확충 및 융복합 R&D 자금 등 정부지원 확대를 약속하였다.
  
- 이어서 황 총리는 LED룸, 프로젝션룸 등 융복합 콘텐츠 제작지원 시설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, 문화체험기술창조과정 1학기 수업 현장에 방문하여,
  - 수업에 참여한 크리에이터(학생)들에게 우리나라 문화를 융성시킬 인적자원으로 콘텐츠 강국 실현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.

※ (붙임) 문화창조아카데미 개요

**1 개요**

- (소재지) '16년, 문화창조벤처단지 7~8층(서울 중구 舊한국관광공사)  
→ '17년, 문화창조아카데미 B1~3층(서울 동대문구 舊산업연구원)
- (학제) 2년 6학기제 (1학기 16주), 비학위과정 (1년마다 수료증 수여)



**2 감독단(교수) 및 크리에이터(학생)**

- (감독단) 국내외 최고의 문화콘텐츠 현장 전문가 26명으로 구성  
- 전임감독 4명, 부분별 프로젝트 감독 16명, 해외 유명 초빙교수 6명
- (크리에이터) 18세부터 51세까지, 스타트업 대표 등 문화콘텐츠 전 분야의 현업 종사자로 구성된 크리에이터 45명  
\* 최종 경쟁률 4:1, 평균나이 35.7세, 대졸이상 98%, 재직자 53%, 프리랜서 36%

**3 세부 교육내용**

